

지혜의 말씀

불기 2570년 4월 / 통권 541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비록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우고 설하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마치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과 같나니
참된 수행자라 할 수 없다.

雖誦習多義 放逸不從正
수송습다의 방일불종정

如牧數他牛 難獲沙門果
여목수타우 난획사문과

- 법구경 계승 19

경전을 아무리 적게 외우고 적게 설하더라도
행동에 옮겨 법을 실천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평안을 얻고
생사를 비롯한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두지 않는 이는
참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時言少求 行道如法 除婬怒痴
시언소구 행도여법 제음노치

覺正意解 見對不起 是佛弟子
각정의해 견대불기 시불제자

- 법구경 계승 20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희초리 / 운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14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4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용왕재 안내

연등접수 안내

제 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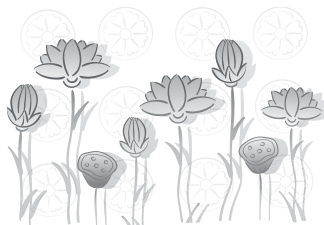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s.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회초리

윤성스님 / 대광사 회주

오늘 아침 뒷산을 산책하며 갑자기 몰아친 찬바람에 입새를 다 떨구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거친 바람에 이리 저리 가지 휘어지는 싸리나무를 보며 내 어머니 엄하시던 회초리를 생각했다.

아버지를 육이오 전장에 보내시고 혹심한 가난에 찌들리며 홀로 아이들을 키우셔야했던 어머니의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유난히 자존심 강하시고 체면을 중시하던 내 어머니였다. 그런 분이 간난 속에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격어야 했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이다.



더러 품앗이 일을 나가실 때 다른 어머니들은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무언가를 얻어 먹이려 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체면을 잃어선 안 된다 하시며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열 살에 채 이르기 전 우리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잊어선 안 될, 명심해야 할 것들을 이르셨는데 여러 번 일러서 잘 외우지 못하면 예의 그 싸리 회초리를 드셨다. 싸리 회초리는 언제나 방의 선반 위에 가로 누워 있어서 우리를 감시하는 선생님이셨다.

삼십절초(三十折楚) 오십절초(五十折楚)란 옛말이 있는데 이는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문장을 구사하는 이를 이르는 말로서, 삼십 개의 회초리를 부러트리고 만들어진 문장. 혹은 오십 개의 회초리를 부러트리고 이루어진 문장력이라는 말이다.

지각 있으신 부모들은 선생님에게 아이 교육을 부탁할 때 반드시 싸리 회초리를 한 다발 만들어 드렸다고 한다. 만약 회초리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시 회초리를 만들어 드리며 회초리로 아이를 때려달라고 간청했다 한다.

산골 외딴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남편 있는 여인의 음탕한 구애를 회초리 들어 물리친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벽장에 숨어 아내의 거동을 살피던 남편의 존경을 한몸



으로 받았음은 물론이다.

회초리는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잃었던 이성을 되찾게 하는 방편이었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였다.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젊어서 과부 된 홍서봉의 어머니는 아이를 때렸던 피 묻은 회초리를 장롱 속에 소중히 간직했다가 후일 “너를 잘 기른 것은 내가 아니라 이 회초리였다.”는 말씀을 하시며 내어 놓았다고 한다.

홀로된 어머니들은 유난히 자식 교육을 엄격히 하셨다. 아비의 엄한 교육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후일 나약하거나 이기적 인격을 갖춘 호로 자식이 될 것을 염려해서였다.

회초리가 오늘날 체벌이라는 새로운 인식에 휘말려 미개한 교육법으로 지탄받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회초리는 결코 때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게 하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뿐이다.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싸리나무를 회초리로 많이 사용했을까? 싸리나무에는 탄닌, 사포닌이 들어있어 덧나지도 굼지도 않게 하는 치료 성분이 있다고 한다. 옛 어른들은 이미 이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회초리를 드는 데 절대 잊어선 안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미 늦은 나이에 새삼 회초리를 들어선 안 된다. 버릇은 이미 세 살 이전에 시작됨을 잊어선 안 된다. 꼭 때리지 않아도 좋다. 엄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회초리에 절대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 피가 나지 않아도 여러 대를 때리지 않아도 회초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아이의 공감을 받아야 한다.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면 반항심이 커짐을 잊어선 안 된다.

여러 대 때리는 것은 분풀이에 불과함을 잊어선 안 된다. 아무 때나 회초리를 드는 것 또한 자기감정에 도취된 행위임을 잊어선 안 된다.

회초리 때린 뒤에는 자기감정을 억누르고 반드시 아이를 보듬어 안아서 사랑하기에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이 해시켜야 한다.

어머니 살가우신 회초리를 기억하며. 때려주실 어머니 없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실는다. 여러 자료를 찾아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 실었다.

『법구경』해설 - 14

두 친구 이야기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때, 친구 사이인 두 비구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사위성이 우정이 매우 돈독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정사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세속적 즐거움을 포기하고 출가하여 비구 수행자가 되었다. 그들은 은사스님 밑에서 5년을 보내며 계율과 수행을 익혔다. 이후 그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교단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비구의 의무에 대해 여쭙었다. 부처님께서서는 수행자의 의무와 교학의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때 보다 젊은 편이었던 친구는 경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경율론 삼장을 배워 통달하여 강사가 되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법을 설하고 암송했다. 또한 그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 되었고, 열여덟 군데의 강사가 되었다.

이에 비해 나이가 좀 더 많은 비구는 “부처님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어 출가했기 때문에 교학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곧장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서는 그에게 네 가지 자세히 관찰하여야 할 대상(사념처)과, 그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위빠사나)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 비구는 부처님께 배운 대로 그 수행법을 잘 실천해 나가 얼마잖아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이즈음 한 무리의 비구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주제를 받고, 그에게로 와서 사념처(四念處) 수행법을 배우고자 했고, 그는 그 비구들에게 수행법을 잘 지도하여 그들도 모두 아라한이 되게끔 해주었다. 그들은 스승인 장로에게 삼배를 드리고 “스승이시여, 저희는 부처님을 뵈러 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장로는 “그렇게 하거나. 부처님께 가거든 내 이름으로 부처님께 발아래 엎드려 인사를 올리고, 80분의 대장로



님께도 내 이름으로 인사를 올려주게나. 그리고 내 친구 장로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시게.”하고 일일이 당부했다.

그 후 헤어졌던 두 친구는 오랜만에 기원정사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때 강사 비구는 그의 나이 많은 세속 친구 비구가 아라한이 된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 다만 자기의 학문만을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삼장에 대해서 질문하여 그의 무지를 일깨우고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서는 천안(天眼)으로 살펴 보시고 생각했다.

‘강사 비구가 나의 정실 제자에게 못된 짓을 하게 되면 그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강사 비구에 대한 연민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을 산책하는 체하며 두 사람 앞에 나타나 곧 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었다.

경에 자신이 있었던 젊은 비구는 대답을 잘하지 못하였고, 아라한을 성취한 나이 많은 비구는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그 비구는 문자상으로만 경의 의미를 알았을 뿐으로 수행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진실을 드러낸 다음, 부처님께서서는 아라한이 된 비



구를 칭찬하시었다. 그러자 강사 비구는 자기와 같이 삼장에 해박한 제자에겐 칭찬이 없으시고, 노둔한 친구 비구만을 칭찬하신다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표하였다.

이를 간파한 부처님께서서는 경을 공부하되 수행이 없는 사람은 마치 남의 소를 보살피 주고 샅을 받는 목동과 같으며, 직접 수행을 하는 사람은 목장의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을 가르치는 강사는 자칫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것에 빠져서 진실한 내적 경지를 등한시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문자상의 의미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실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수행자는 참다운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 편이 마땅히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그런 수행자라야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잘 제거하여 마음의 고요함을 잘 성취한다. 그리하여 그는 평화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회의 거센 파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 기쁨과 자유로움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 표지의 두 계송을 읊으시었다.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대광사 4월 법회 및 행사

- ◇ 4월 2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4월 11일 : 용왕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4월 17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4월 19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용왕재 안내

- 4월 11일(토)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가족축원 3만원

연등접수 안내

- 대웅전 / 설법전 / 관음전 / 영가등



대광후원회

(2026.2.19.~3.19.)

황두관 1만원	변창인 2만원	정대식 5만원	김종열 10만원
이순남 1만원	김병문 2만원	김세훈 5만원	문경봉 10만원
정진이 1만원	홍승운 2만원	차재원 5만원	이병정영정영여 20만원
박미애 1만원	이인숙 2만원	김주영 5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송성수 1만원	구자민 3만원	김태희 6만원	
이경화 1만원	이우권 3만원	이미경 10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지혜의말씀 후원(2026.2.19.~3.19.)

구명희 50만원 / 청향심(영) 2만원 / 조홍준 1만원 / 송민기 1만원

♥ 설담장학회(2026.2.19.~3.19.)

명진스님 1천만원 / 주지스님 10만원 / 불대22기 10만원 / 신애란 10만원
 이지웅 5만원 / 김태희 3만원 / 김단우 3만원 / 진병천 3만원 / 김경진 3만원
 이유림 2만원 / 이윤정 2만원 / 박임선 2만원 / 구자민 2만원 / 변지오 2만원
 이순남 1만원 / 이경화 1만원



※ 대광사 수미산약회 회원모집

- 매달 3주 토요일 산행
(단, 사중 행사가 있을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회비 5천원 - 문의 및 접수 ☎545-9595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원각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佛紀 2570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요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6년 3월 10일 ~ 4월 1일(매주 화, 수)	2026. 4월 7일(화) ~ 12월 16일(수)
수 계 일	2026년 4월 4일	(1년 과정 - 2학기제)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3월 중순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포함)
불교대학 1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범복 포함)
불교대학 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총 45만원(학기별 납부가능)
불대계좌 : 수협 921-61-001749 대광사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biriya@hanmail.net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